



# 쉽고 멋있게 공간을 연출한다

우리는 흔히 아이들의 방을 꾸며 줄 때, 장판이나 벽지를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고 시공을 전문인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접착타일'은 누구나 손쉽게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하고 원하는 형태대로 장판대신 깔 수가 있다. 이 접착타일은 장판과는 달리 접착제가 미리 발라져 있어서 이형지만 떼어내고 원하는 형태로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시공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접착타일의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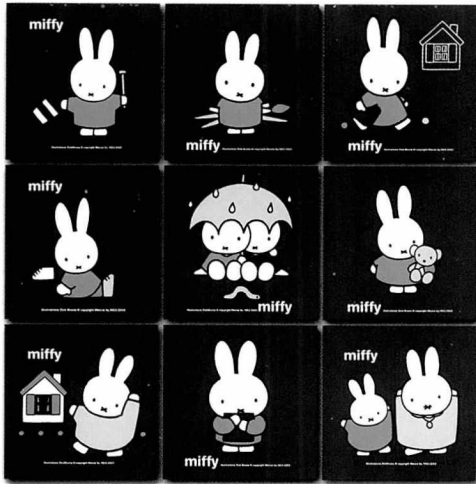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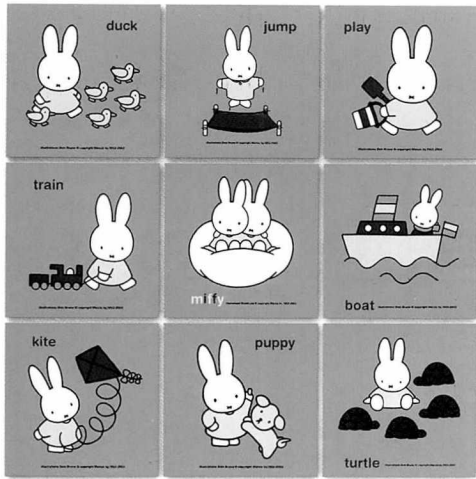
UV 코팅 층 → 인쇄 보호 층 → 인쇄 층 → 수축 보완 층 → 베이스 층 → 밸런스 층 → 접착 층 → 이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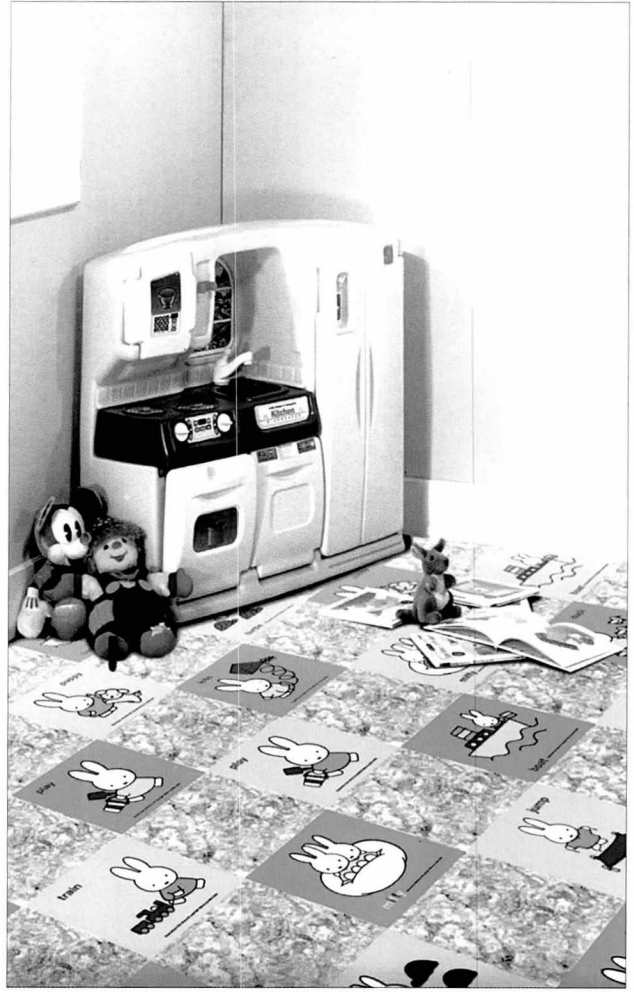
이 제품은 아이들 방 뿐만이 아니라 거실, 침실, 사무실, 복도, 식당 등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면 어디에나 사용할 수가 있으며 심지어는 벽 아래쪽에 붙여도 좋다. 여기에서의 접착타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업제품이 아닌 플라스틱제품이다.

이 접착타일은 플라스틱 원료를 이용한 기초재와 여러 가지 첨가물질과 가공방법을 이용해 만듦으로써 기존 플라스틱제품의 단점이었던 열에서의 수축현상을 최대한 억제, 우리나라 특유의 온돌문화에 맞게끔 설계돼 있다. 이 접착타일의 제조공정 중 인쇄공정은 기존의 그라비아 인쇄방법을 이용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크스크린인쇄를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일이 실크스크린인쇄를 한다면 표현의 한계와 원가상승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라비아 인쇄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원가를 낮추고 있다.

그라비아인쇄는 오목판(요판) 방식으로 화선부가 오목하며 여기에 잉크를 채워 실린더와 필름(용지)이 직접 닿아 인쇄가 된다. 그라비아 인쇄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잉크팬에서 묻어 나온 잉크가 오목한 부분 이외에는 없어야 하기 때문에 칼(긁개, 블레이드타터)로 깨끗이 긁어 주어야 한다. 접착타일의 인쇄는 우선 원하는 디자인으로 작업을 해서 필름출력을 거쳐 동판을 만든다. 동판은 다시 선명도를 높이거나



◆ 현대시트의 점착타일(상품명 아이위즈) 제품들



장타를 인쇄하기 위해 도금처리를 하고 나서 투명필름에 그라비아인쇄를 해서 인쇄지를 만든다. 만들어진 인쇄지는 점착타일의 기초재와 인쇄보호용 투명지, 수축보완 등을 위한 여러 가지 소재를 합쳐 프레스로 눌러 다단층의 제품을 만든다. 이 때 프레스로 인쇄 층에 맞는 엠보싱이나 음각 및 양각을 살려 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 프레스한 제품은 다시 UV로 코팅을 해서 광택성이나 보호성을 높여준다.

이렇게 완성된 점착타일은 일정한 규격에 맞게 재단을 하고 그 다음에 바닥면에 점착제를 바른다. 다른 제품의 경우는 점착제를 바르고 그 위에 이형지를 붙인 다음 재단을 하지만 점착타일은 이형지를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재단을 먼저하고 점착제를 붙인 다음 제품보다 약간 큰 이형지를 붙여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완성된 제품은 포장 후 운반 및 보관을 하게 된다. <윤재호 부장>

